

컬러코디네이션 기법이 남성착용자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 (제2보) -톤 인 톤 배색을 중심으로-

임 지 영[†]

신라대학교 패션산업학부

The Effect of Color Coordination Type on Impression of Male Wearer (Part 2) -Focus on Tone-in-tone Coloration-

Ji-Young Lim[†]

Div. of Fashion Industry, Silla University
(2007. 3. 29. 접수)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shirt color, tie color, tone, perceiver' gender on impression formation by applying tone-in-tone coloration of shirt and necktie: coloration of two colors. This experiment was designed to utilize the $2 \times 6 \times 4 \times 2$ factorial designs. and they are shirt color(red, blue), tie color(red, yellow red, yellow, green, blue, purple), tone(vivid, light, dull, dark), and perceiver' gender(a male, a female). The experimental materials developed for this study were a set of stimulus and response scales. The stimuli were 48 upper body photographs which were color outputs by CAD system(4D-box program). The subjects of this research were 288 male and 288 female college students. There were established impression dimension from factor analysis 27 bi-polar adjectives and investigated the effect of interaction between each variable affected impression formations. The items of the adjectives are classified into 4 Impression dimensions : activity, potency, attractiveness, and tenderness. Shirt color, tie color, tone, and perceiver' gender influenced on impression formation. Specially, tie color and tone influenced on the 4 impression dimension greatly by interaction as well as independently. As a result tie is very important clue of impression formation in tone-in-tone coloration of shirt and necktie. Even though tie occupies only a small area in men's clothes it has great effect since it is close to the face.

Key words: Impression formation, Color coordination, Tone-in-tone coloration, Shirt, Necktie; 인상형성,
컬러코디네이션, 톤 인 톤 배색, 셔츠, 넥타이

I. 서 론

색은 대다수 사람들이 제일 먼저, 그리고 가장 강하게 반응하는 디자인 요소이며 사람의 감성이나 심리적 반응을 일으키게 하므로 의복색은 의복을 착용한 사람의 인상을 형성하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의

복단서가 되는 색은 단색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복수의 색이 사용되기도 하는데, 이들 복수의 색이 배색될 때 일반적으로 지각자는 각각의 색을 분리시켜 지각하지 않고 조직화된 전체로 지각하게 되는 행동 패턴을 가지게 된다. 또한 의복디자인에서 색채는 형태나 패턴보다도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최근 남성복은 컬렉션뿐만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도 정장이나 캐주얼 할 것 없이 톡톡 튀는 컬러코디네이션이나 감성적인 디자인이 많아지고 화려한 액

[†]Corresponding author
E-mail: jylim@silla.ac.kr

세서리가 떠오르는 것을 볼 수 있다. 남성복에 있어 넥타이는 즉각적이고 두드러지게 눈에 띄어 착용자의 태도나 지위를 나타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넥타이는 작은 부분에 불과하지만 시각적 인상을 강하게 한다. 남성복은 디자인보다 소재나 색상을 통해 다양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데 특히 남성복에서 색은 디자인 요소 중 일부분이지만 가장 표현적인 요소이고 자신이 원하는 인상을 창출하는데 도움을 준다. 그러나 색은 명도, 채도, 색상에 따라 다르게 지각되므로 인상형성에 미치는 색의 영향을 정확하게 밝히는 일은 쉽지 않다. 넥타이와 셔츠는 모두 색을 가지고 인접해 있어서 이들 색이 독립적으로 보이지 않고 상호관련 되어서 통합되어 지각될 것이다.

그러므로 디자인상의 변화가 크지 않는 남성복 시장에 셔츠와 넥타이의 2색 배색을 체계적으로 코디네이트 시켜 이들 배색이 인상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는 것은 의미가 있고 더 나아가 패션에서 감성화를 추구하는 남성복 시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일이라 생각된다.

의복에서 2색 배색의 연출방법은 톤 온 톤 배색, 톤인 톤 배색, 보색 배색, 유채색과 무채색 배색, 무채색 간 배색으로 구분될 수 있다. 다양한 배색방법 중 셔츠와 넥타이의 색을 통일하고 셔츠의 톤과 넥타이의 톤을 달리하여 조합한 <제1보> 톤 온 톤 배색에 이어 본 연구에서는 셔츠와 넥타이의 톤은 동일하게 하고 셔츠의 색과 넥타이의 색을 다르게 조합한 톤 인 톤 배색으로 통제하였다. 즉 셔츠색 2가지 빨강, 파랑과 넥타이색 6가지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보라를 각기 조합시킨 후 조합된 셔츠와 넥타이의 배색을 각기 비비드, 라이트, 덜, 다크 톤이 되도록 조작하여 만든 48개의 톤 인 톤 배색에 따른 착용자의 인상이 어떤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의미미분척도를 구성하여 그 요인구조를 살펴보고, 이를 단서들 즉 셔츠색, 넥타이색, 톤이 착용자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과 단서들의 상호작용효과를 밝히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복식디자인의 색채는 우선적으로 지각되는 요소로서 의복 착용자에 대해 지각되는 과정에서 심리, 생리적으로 작용하며 색이 가지는 이미지는 의복 이미지에 영향을 준다. 빨강색 의복의 색채이미지는 건강한, 정열적인, 대담한, 섹시한, 위험한 이미지이고, 노랑색 의복의 색채이미지는 밝은, 젊은, 화려한, 빛나

는 이미지이고, 초록은 건강한, 젊음, 자연보호, 미숙한, 기이한 이미지, 파랑은 보수적인, 캐주얼한, 활동적인, 남성적인, 산뜻한 이미지, 보라는 로맨틱, 엘레강스, 섞크, 맨디한 이미지인 것으로 나타났다(추선형, 김영인, 2002).

의복의 색채는 톤에 따라 또 다른 이미지를 나타내는데 v(vivid), s(strong)의 고채도 영역의 화려한 톤은 활동적이고 강렬한 이미지를 주며, b(bright), p(pale), lt(light)의 고명도 영역의 밝은 톤은 여성적이고 부드러우며 낭만적인 이미지를, ltg(light grayish), g(grayish), sf(soft), d(dull)의 중명도 영역의 수수한 톤은 차분하며 편안한 이미지를, dp(deep), dk(dark), dkg(dark grayish)의 저명도 영역의 어두운 톤은 엄숙하고 남성적이며 중후한 이미지를 지닌다(IRI디자인연구소, 1997).

색채의 온도감이나 명암, 선명도의 특성과 관련하여서 난색은 행복하게, 자유롭게, 발랄하게 보이며, 한색은 온화하게, 경험의 풍부하게, 성숙하게 보인다. 명색조는 순수하게, 젊게, 천진난만하게 보이며, 암색조는 나이가 들게, 부드럽게, 원숙하게 보인다. 선명한 채도는 젊고 발랄하게 보이며, 반면에 탁한 채도와 무채색은 성숙된 경험을 지닌 세련됨, 장수, 평온함을 불러일으킨다(김영인 외, 2000).

의복의 이미지 형성에 있어 의복의 형태보다 색채가 더 중요하며, 단색보다는 두 색이 조합되어 어울릴 때 색채이미지의 내포적 힘이 강해지고 표현범위가 넓어진다. 두 색 이상의 조합에 의해 이루어지는 배색방법이나 패션컬러코디방법으로 톤 온 톤, 톤 인 톤 등의 배색이 있는데, 톤 인 톤(tone-in-tone) 배색이란 톤은 같거나 가깝고 색상의 폭을 주어 얻어지는 배색을 말한다(이경순, 김희섭, 1998). 강경자(2001, 2002)는 치마저고리의 배색방법에 있어 톤 인 톤 배색, 톤 온 톤 배색 등으로 구분하여 2색 배색에 대한 조화감을 체계화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치마저고리의 톤 온 톤 배색과 톤 인 톤 배색에 따른 인상을 연구하였다. 톤 인 톤 배색의 조화감에 관한 연구에서 한국여대생은 덜 톤의 보라 치마는 덜 톤의 파랑이나 동색의 보라 저고리와 조화되며, 덜 톤의 파랑 치마는 덜 톤의 노랑이나 초록 저고리와 조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빨강 치마와 노랑 저고리의 배색은 비비드나 덜 톤, 다크 톤일 때 조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톤 인 톤 배색을 중심으로 한복착용자의 인상을 연구한 결과 치마색보다 저고리색과 상하의 톤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젊음·활동성 차원에서는 유

사배색이고 라이트 톤인 경우가, 매력성 차원에서는 대비배색이고 라이트 톤인 경우가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되었고, 현시성 차원에서는 유사배색일 경우는 비비드와 라이트 톤이, 대비배색일 경우에는 비비드와 다크 톤이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되어 비비드 톤이 배색 유형에 상관없이 현시적인 이미지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강경자, 최수경, 2005).

남성복의 인상(강경자, 임지영, 1996; 남미우, 강혜원, 1994; 이은미, 강혜원, 1994; 이향미, 김재숙, 1998; 최유진, 이명희, 2004)에 관한 연구에서 남성복의 인상 차원은 활동성, 매력성, 평가성, 능력성, 현시성, 품위성, 남성성 등이 도출되었고, 각 단서들은 이를 인상차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감색 의복이 평가적 차원에 긍정적인 평가를 얻어 지적이고 예의바르며 신뢰감이 드는 것으로, 적벽돌색 의복은 사교적 차원에 긍정적으로 평가되어 밝고 편안하며 친근하게 여겨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파란색 셔츠와 파란색 재킷 그리고 파란색 넥타이가 배색될 때 능력있고 매력있게 평가되었다. 매력적인 이미지에는 넥타이무늬가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고, 독특한 이미지에는 추상무늬나 감색 의복에 대비된 색의 꽃무늬, 페이즐리무늬 넥타이가 효과적이고, 능력있는 이미지에는 감색과 베이지색 의복에 유사한 배색의 무늬, 특히 줄, 페이즐리, 체크무늬의 넥타이가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본색상의 캐쥬얼이 유행색상의 캐쥬얼보다 더 활동적으로 평가하였고 대학생집단은 면접이나 정장에서 유행색상이 더 활동적으로 지각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에서는 일반적인 색이미지나 톤에 따른 이미지는 의복착용자의 인상형성에 연관되어 나타났다. 특히 남성복에서 셔츠와 넥타이의 배색은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며, 디자인 변형이 적은 남성복에 있어 다양한 컬러코디네이션 기법에 따른 인상형성을 연구하는 것은 의미가 있으며, 특히 톤 인 톤 배색은 동일한 톤이라는 공통성을 가지며 여러가지 컬러를 코디하는 다양성을 가진 배색 방법으로 더욱 의미가 있다고 본다.

I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측정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도구는 셔츠와 넥타이가 조합된 자극물과 이에 대한 반응을 측정하는 의미미분척도

로 구성하였다.

자극물은 셔츠와 넥타이를 착용한 20대 남성의 허벅지 중간까지의 상반신 사진으로 하였다. 자극물의 모델은 우리나라 20대 남성의 기본체형(사이즈코리아, 1997)의 모델을 선정하였으며 얼굴과 헤어스타일, 바지는 통제하였다. 자극물 제작은 Digital Camera로 모델을 촬영한 후 포토샵 프로그램으로 부드럽고 흐린 얼굴로 사진을 수정하였고 주 작업은 CAD system (4D-Box Hi-Print Program)을 이용하였으며 컬러프린트기로 출력하였다.

자극물의 셔츠색은 심리적 측면에서 색채가 갖는 속성인 온도감을 기준으로 한난색인 빨강과 파랑을 선정하였다. 넥타이색은 다양한 배색을 위해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보라의 6가지 색상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톤은 색채조화를 주목적으로 한 컬러시스템인 일본색연배색체계(PCCS)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명도에 변화를 준 라이트, 덜, 다크의 3가지 톤과 색상의 기준이 되는 비비드 톤을 합하여 총 4가지 톤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셔츠와 넥타이에 사용된 색상과 톤은 <표 1>과 같다. 색상의 표시는 실용한국표준색표집(KBS한국색채연구소, 1991)에 근거하여 기입하였다.

<표 1> 자극물에 사용된 색상과 톤

색상 \ 톤	비비드 (vivid)	라이트 (light)	덜 (dull)	다크 (dark)
빨강 (Red)	5R 4/14	5R 8/6	5R 5/6	5R 2/6
주황 (Orange)	5YR 5/10	5YR 8/4	5YR 6/4	5YR 2/4
노랑 (Yellow)	5Y 4/14	5Y 8/6	5Y 5/6	5Y 2/6
초록 (Green)	5G 5/10	5G 8/4	5G 6/4	5G 2/4
파랑 (Blue)	5B 4/14	5B 8/6	5B 5/6	5B 2/6
보라 (Purple)	5P 5/10	5P 8/4	5P 6/4	5P 2/4

이렇게 선정된 색을 셔츠와 넥타이에 차이 나도록 조합한 톤 인 톤 배색의 자극물 48개(2색×6색×4톤)가 최종적으로 평가에 사용되었으며 이때 배경색은 밝은 회색으로 통제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자극물의 조작내용은 <표 2>와 같다.

의미미분척도는 남성복을 연구한 선행연구들(강경자, 임지영, 1996; 남미우, 강혜원, 1994; 이은미, 강

<표 2> 자극물의 조작 분류

셔츠색	톤 넥타이색	비비드 (V)	라이트 (lt)	덜 (d)	다크 (dk)
빨강 (R)	빨강 (R)	R/R-V	R/R-lt	R/R-d	R/R-dk
	주황 (YR)	R/YR-V	R/YR-lt	R/YR-d	R/YR-dk
	노랑 (Y)	R/Y-V	R/Y-lt	R/Y-d	R/Y-dk
	초록 (G)	R/G-V	R/G-lt	R/G-d	R/G-dk
	파랑 (B)	R/B-V	R/B-lt	R/B-d	R/B-dk
	보라 (P)	R/P-V	R/P-lt	R/P-d	R/P-dk
파랑 (B)	빨강 (R)	B/R-V	B/R-lt	B/R-d	B/R-dk
	주황 (YR)	B/YR-V	B/YR-lt	B/YR-d	B/YR-dk
	노랑 (Y)	B/Y-V	B/Y-lt	B/Y-d	B/Y-dk
	초록 (G)	B/G-V	B/G-lt	B/G-d	B/G-dk
	파랑 (B)	B/B-V	B/B-lt	B/B-d	B/B-dk
	보라 (P)	B/P-V	B/P-lt	B/P-d	B/P-dk

혜원, 1994; 이향미, 김재숙, 1998)에서 사용된 형용사상을 참고로 39개의 형용사상이 선정되었으나 요인분석결과 최종적으로 색상과 톤을 표현하는데 적절한 27개의 형용사상이 도출되었다. 자극물의 인상을 측정하는 의미미분척도는 각 형용사상 중간을 기준으로 좌측 극단의 긍정적인 형용사에 +3점을, 우측 극단의 부정적인 형용사에 -3점을 주었다.

실험설계는 48개의 자극물을 24개의 실험조합으로 구성하고 하나의 실험조합에 2장의 자극물을 포함시켰다. 각 실험조합당 피험자수는 실험조합별로 12명씩 피험자간 설계에 의해 무선 배치되었다. 하나의 실험조합에 포함된 자극물은 색상과 톤의 조합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였다.

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평가자는 진주와 진주 인근의 남녀 대학생 각 288명씩 576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자료수집은 2005년 5월~9월에 이루어졌다.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SPSS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통계분석방법은 인상차원에 대한 요인구조를 밝히기 위해 주성분분석방법과 Varimax의 직교회전을 이용하여 요인을 분석하였다. 도출된 인상요인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Cronbach-계수를 산출한 결과 총 27개의 형용사상에 대해 =.8332로 일관성있게 평가되었으며, 도출된 인상요인의 신뢰도 계수는 활동성 요인이 .9221, 능력성 요인이 .9067, 매력성 요인이 .9113, 은유성 요인이 .6718로 나타났다.

4가지 단서가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4원변량분석을 하였고 보조분석으로 MCA(Multiple Classification Analysis)를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논의

1. 셔츠색, 넥타이색, 톤, 지각자성별에 의한 인상 차원의 요인 분석

셔츠색, 넥타이색, 톤, 지각자성별에 변화를 주어 제작한 총 48개의 자극물에 대한 인상차원을 밝히기 위해 27쌍의 형용사상으로 평가한 자료를 주성분모형과 Varimax 방법에 의해 요인분석한 결과 아이겐값 1.0 이상으로 하여 4개 요인으로 묶이어 셔츠·넥타이 착용자의 인상은 활동성, 능력성, 매력성, 은유성 요인으로 도출되었으며 분석결과는 <표 3>과 같다.

요인 1은 활동적인-비활동적인, 개성적인-개성없는, 활력을주는-가라앉게하는, 개방적인-보수적인, 눈에띄는-무난한, 즐거운-우울한, 화려한-수수한, 젊어보이는-나이들어보이는, 사교적인-비사교적인, 대담한-소심한의 10개 형용사상으로 구성되어 “활동성 요인”이라 명명하였고, 전체 변량에 대한 설명력은 22.7%였다. 활동성 요인의 구성인자는 의복유형, 의복형태, 색상을 의복 단서로 사용한 남미우, 강혜원(1994)의 활동성 요인, 최유진, 이명희(2004)의 남성제кат, 와이셔츠, 넥타이색의 이미지 지각에서의 활동성 요인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요인 2는 책임감있는-책임감없는, 성실한-성실하지 않은, 예의있는-예의없는, 겸손한-자만심이강한, 안정된-불안정한, 고상한-야한, 형식적인-형식적이지 않은, 자제력있는-충동적인, 이성적인-감성적인, 권위적인-권위적이지 않은의 10개 형용사상으로 구성되어 “능력성 요인”이라고 명명하였으며, 전체 변량에 대한 설명력은 20.4%였다. 능력성 요인의 구성인자는 강경자, 임지영(1996)의 넥타이색과 무늬에서 도출된 인

<표 3> 색조와 베타이의 톤 인 톤 배색에 의한 인상차원 요인분석

	요인 1 활동성	요인 2 능력성	요인 3 매력성	요인 4 온유성	공통성(h^2)
활동적인-비활동적인	.777	-.162	.183	.131	.681
개성적인-개성없는	.765	-.249	.089	.028	.656
활력을주는-가라앉게하는	.754	-.141	.163	.231	.668
개방적인-보수적인	.734	-.315	.180	.109	.682
눈에띄는-무난한	.729	-.328	-.056	-.122	.657
즐거운-우울한	.722	-.088	.170	.306	.653
화려한-수수한	.716	-.348	.041	-.008	.636
젊어보이는-나이들어보이는	.680	-.163	.359	.134	.635
사교적인-비사교적인	.664	-.034	.264	.278	.589
대담한-소심한	.658	-.169	.041	-.135	.482
책임감있는-책임감없는	-.100	.824	.218	.019	.737
성실한-성실하지않은	-.070	.810	.183	.111	.707
예의있는-예의없는	-.208	.803	.135	.162	.733
겸손한-자만심이강한	-.258	.702	.070	.280	.643
안정된-불안정한	-.245	.656	.291	.212	.621
고상한-야한	-.378	.639	.100	.068	.566
형식적인-형식적이지않은	-.336	.629	-.057	-.166	.539
자제력있는-충동적인	-.372	.626	.303	.065	.626
이성적인-감성적인	-.060	.605	.120	-.188	.419
권위적인-권위적이지않은	-.308	.577	.109	-.341	.556
멋있는-멋없는	.075	.197	.830	.087	.741
감각있는-감각없는	.217	.150	.821	.127	.760
보기좋은-보기싫은	.065	.294	.811	.186	.783
매력있는-매력없는	.243	.145	.809	.050	.737
세련된-촌스러운	.317	.200	.774	.080	.746
부드러운-딱딱한	.162	.088	.230	.788	.708
따뜻한-차가운	.147	.071	.138	.726	.573
고유치	6.140	5.519	4.001	1.871	17.531
전체 변량의 %	22.741	20.439	14.817	6.931	64.928
공통 변량의 %	35.024	31.481	22.822	10.673	100.000

상 중 능력성 요인과 매우 유사하게 나타났다.

요인 3은 멋있는-멋없는, 감각있는-감각없는, 보기좋은-보기싫은, 매력있는-매력없는, 세련된-촌스러운의 5개 형용사쌍으로 구성되어 “매력성 요인”이라고 명명 하였으며, 전체 변량에 대한 설명력은 14.8%였다. 이 주현, 조궁호(1995)의 의복형태와 색채가 의복착용자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에서 평가·매력성 요인, 김윤경, 강경자(2003)의 의복스타일과 색상, 톤 조합이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매력성 요인, 이명희(2002)의 의복유형 및 배색이 여성의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에서의 매력성 요인과 유사하였다.

요인 4는 부드러운-딱딱한, 따뜻한-차가운의 2개 형용사쌍으로 구성되어 “온유성 요인”으로 명명하였으며 전체 변량에 대한 설명력은 6.9%였다. 이는 강경자, 임지영(1996)의 온유성 요인과 일치하였다.

회귀모형방식에 의해 산출된 요인점수들의 결과해석은 요인점수가 높을수록 활동성 요인에서는 활동적이고 개성적이고 활력을주고 개방적이고 눈에띄는 것으로, 능력성 요인에서는 책임감있고 성실하고 예의있고 겸손하고 이성적인 것으로, 매력성 요인에서는 멋있고 감각있고 보기좋고 매력있는 것으로, 온유성 요인에서는 부드럽고 따뜻한 것으로 지각되는 것

을 의미한다. 도출된 4개 요인이 전체 변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64.9%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 활동성, 능력성은 공통 변량의 66.4%를 나타내어 톤 인 톤 배색에 의한 착용자의 인상에서 이 두 요인은 중요한 차원인 것을 알 수 있다.

2. 셔츠색, 넥타이색, 톤, 지각자성별이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셔츠색, 넥타이색, 톤, 지각자성별의 4가지 단서가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4원변량분석을 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변량분석결과 독립변

<표 4> 셔츠색, 넥타이색, 톤, 지각자성별이 인상에 미치는 영향

		요인 1 활동성		요인 2 능력성		요인 3 매력성		요인 4 온유성	
		평균 제곱합	F값	평균 제곱합	F값	평균 제곱합	F값	평균 제곱합	F값
주 효과	셔츠색(A)	3.471	4.559*	.325	.434	3.978	4.411*	103.651	151.496**
	넥타이색(B)	1.866	2.450*	2.704	3.608**	3.001	3.328**	5.309	7.760**
	톤(C)	78.454	103.046**	48.441	64.633**	4.945	5.483**	80.126	117.112**
	지각자성별(D)	.058	.076	.089	.118	14.480	16.056**	.278	.406
2원 상호작용 효과	AxB	.777	1.020	3.104	4.142**	3.248	3.602**	.324	.474
	AxC	4.569	6.001**	2.949	3.935**	.095	.106	.568	.830
	AxD	.271	.356	.617	.823	1.121	1.243	2.626	3.838*
	BxC	1.879	2.467**	3.641	4.858**	1.887	2.092**	1.719	2.512*
	BxD	.437	.573	.704	.939	1.801	1.997	.401	.586
	CxD	2.973	3.906**	1.274	1.700	1.722	1.910	2.523	3.688*
3원 상호작용 효과	AxBxC	.783	1.029	1.888	2.519**	1.390	1.541	.795	1.161
	AxBxD	.414	.544	.754	1.006	.745	.826	.829	1.212
	AxCxD	.011	.014	3.591	4.791**	.418	.464	1.600	2.339
	BxCxD	1.505	1.977*	.878	1.171	.784	.869	.487	.712
4원 상호작용 효과	AxBxCxD	1.027	1.349	.846	1.129	1.058	1.173	.803	1.174
MCA		편 차	eta	편 차	eta	편 차	eta	편 차	eta
셔츠색	Red	-.06		.02		-.06		.32	
	Blue	.06	.06	-.02	.02	.07	.06	-.33	.31
넥타이색	R	-.02		-.13		.06		-.11	
	YR	-.19		.25		.10		.25	
	Y	.06		-.05		.16		.16	
	G	.12		-.05		-.07		-.24	
	B	-.04		.03		-.21		-.11	
	P	.07	.10	-.03	.12	-.01	.12	.08	.16
톤	vivid	.68		-.58		-.20		-.23	
	light	.18		-.05		.01		.81	
	dull	-.14		.09		.04		-.06	
	dark	-.69	.48	.52	.39	.14	.12	-.54	.48
지각자 성별	여 자	.00		.00		-.13		-.01	
	남 자	.00	.00	.00	.00	.12	.13	.01	.01
Multiple R ²		.244		.165		.051		.355	
Multiple R		.494		.406		.226		.596	

*p<.05, **p<.01

인인 셔츠색, 넥타이색, 톤, 지각자성별은 인상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단서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이들 단서들이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은 인상차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주 효과를 보면 단서가 셔츠색인 경우 활동성, 매력성, 온유성 요인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온유성 요인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서가 지각자성별인 경우 매력성 요인에만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넥타이색과 톤은 모든 인상차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톤은 활동성, 온유성 요인에서 지배적인 영향을 미쳐 톤 인 톤 인상형성에서는 넥타이색과 톤이 다른 단서보다 중요 한 단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셔츠색, 넥타이색, 톤, 지각자성별은 착용자의 인상에 영향을 미치는 단서임을 알 수 있고 이들 단서들이 셔츠와 넥타이 착용자의 인상차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유의적인 상호작용효과를 <그림 1><그림 11>의 도표로 설명하였다.

I) 활동성 차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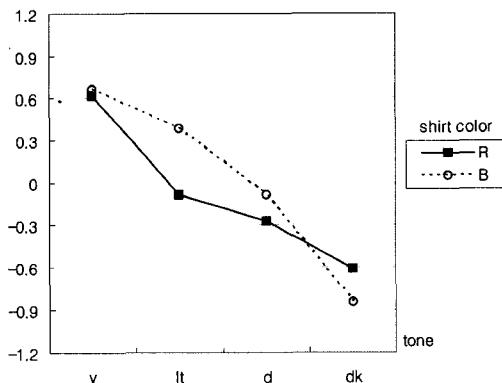
활동성 차원을 <표 4>에서 보면 셔츠색, 넥타이색, 톤이 독립적인 영향을 미치며 그 중에서도 톤이 가장 지배적인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MCA의 편차값에 근거한 eta값을 통해 주효과의 영향력을 보면 셔츠색은 파랑색이, 넥타이색은 노랑, 초록, 보라색이, 톤은 비비드, 라이트 톤일 때 활동성 차원에 더 긍정적으로 평가되었고, 남자와 여자 모두 활동성 이미지에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이들 네 단서 중 셔츠색과 톤, 넥타이색과 톤과 지각자성별 간의 상호작용으로 활동성 인상형성차원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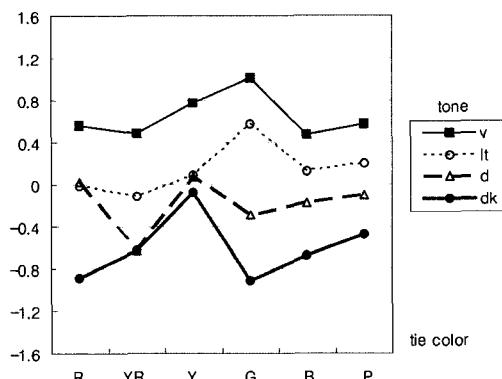
먼저 활동성 차원에 영향을 미치는 셔츠색과 톤의 상호작용효과를 <그림 1>에서 보면 톤이 비비드일 때 셔츠색이 빨강과 파랑 둘 다 긍정적으로 평가되어 활동적이고 개성적이고 활력을 주고 즐겁고 젊어 보이며 사교적이고 대담한 것으로 지각되었다. 톤이 라이트일 때는 파랑색 셔츠는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으나 빨강은 부정적으로 평가되어 비활동적이고 개성 없고 가라앉게 하며 우울하고 나이들어보이고 비사교적이고 소심한 것으로 지각되었다. 덜과 다크 톤일 때는 셔츠색에 상관없이 활동적인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덜 톤일 때는 빨강이, 다크

톤일 때는 파랑이 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빨강과 파랑 둘 다 톤의 변화에 크게 차이를 보여 동일한 셔츠색의 의복도 톤에 따라서 활동적 이미지의 정도가 다르게 지각됨을 알 수 있다. 즉 동일한 색상도 톤이 선명하고 밝은 톤이면 활동적으로, 탁하고 어두운 톤이면 비활동적으로 평가되었다.

다음으로 활동성 차원에 영향을 미치는 넥타이색과 톤의 상호작용효과를 <그림 2>에서 보면 비비드>라이트>덜>다크 순으로 활동적인 인상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넥타이색이 빨강, 노랑색일 때는 비비드, 라이트, 덜 톤일 때 긍정적으로 평가되었고, 주황일 때는 비비드 톤만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넥타이색이 초록, 파랑, 보라일 때는 비비드, 라이트 톤은 긍정적으로, 덜, 다크 톤일 때는 부정적으로 평가되었다. 즉, 톤이 선명하고 밝은 톤일 때는 더 활동적이고 젊어 보이고 사교적이며 개성적으로 지각되고 톤이 탁하



<그림 1> 활동성 차원에 영향을 미치는 셔츠색과 톤의 상호작용효과



<그림 2> 활동성 차원에 영향을 미치는 넥타이색과 톤의 상호작용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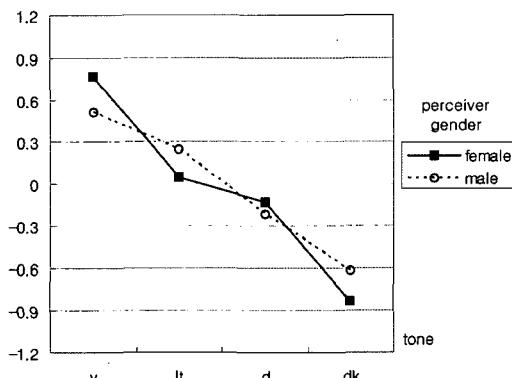
고 어두우면 넥타이색에 상관없이 비활동적인 인상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활동성 차원에 영향을 미치는 톤과 지각자성별의 상호작용효과를 <그림 3>에서 보면 비비드와 라이트 톤일 때 남자와 여자 둘 다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활동적이고 개성적이고 활력을 주고 즐겁고 젊어 보이며 사교적이고 대담한 것으로 지각되었으며 그 정도는 비비드는 여자가, 라이트는 남자가 더 활동적인 인상을 준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덜과 다크 톤일 때는 남자, 여자 둘 다 부정적으로 지각하여 비활동적이고 개성없고 가라앉게 하며 우울하고 나아들어 보이고 비사교적인 것으로 지각되었으며 그 정도는 덜 톤일 때는 남자가, 다크 톤일 때는 여자가 더 비활동적인 인상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자, 여자 둘 다 톤 변화에 일관된 차이를 나타내어 톤에 따라서 활동적 이미지의 정도가 다르게 지각됨을 알 수 있다. 즉 동일한 성별에서도 톤이 선명하고 밝은 톤이면 활동적으로, 탁하고 어두운 톤이면 비활동적으로 평가되었다.

이상의 결과와 같이 톤이 활동적인 이미지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며 그 중에서도 선명한 비비드 톤은 활동적인 이미지에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김영인 외, 2000; IRI디자인연구소, 1997)의 결과를 지지하였다.

2) 능력성 차원

능력성 차원을 <표 4>에서 보면 넥타이색, 톤이 독립적인 영향을 미치며 그 중에서도 톤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MCA의 편차값에 근거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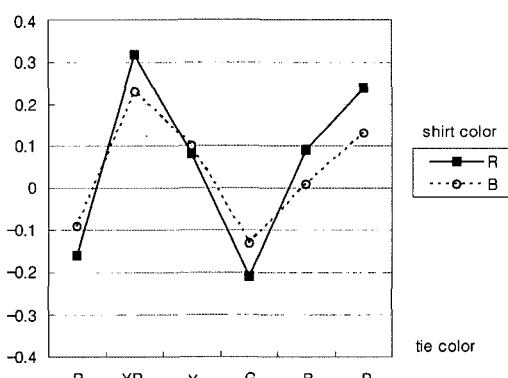
<그림 3> 활동성 차원에 영향을 미치는 톤과 지각자성별의 상호작용효과

eta값을 통해 주효과의 영향력을 보면 셔츠색은 빨강색이, 넥타이색은 주황, 파랑색이, 톤은 덜, 다크일 때 능력성 차원에 더 긍정적으로 평가되었고, 남자와 여자 모두 능력성 이미지에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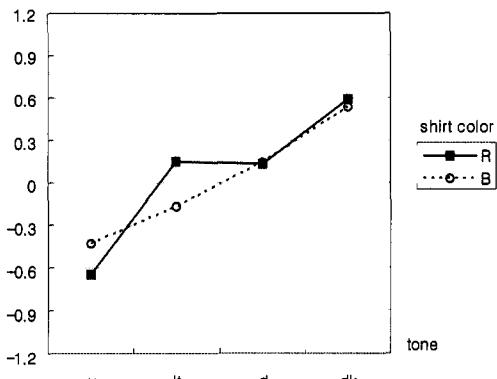
그러나 독립변인 중 셔츠색은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넥타이색이나 톤과 상호작용하여 능력성 인상차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넥타이색, 톤과의 3원상호작용으로, 또는 톤과 지각자성별과의 3원상호작용으로 능력성 인상차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능력성 차원에 독립적인 영향을 미치는 두 단서인 넥타이색과 톤은 셔츠색과 넥타이색, 셔츠색과 톤, 넥타이색과 톤 간의 상호작용으로 능력성 톤 인 톤 인상형성차원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능력성 차원에 영향을 미치는 셔츠색과 넥타이색의 상호작용효과를 <그림 4>에서 보면 셔츠색에 상관없이 일관된 평가를 나타내었는데, 즉 넥타이색이 주황, 노랑, 파랑, 보라이면 능력성 차원에 긍정적으로 평가되어 책임감있고 성실하고 예의있고 겸손하고 이성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빨강이나 초록 넥타이는 능력성 차원에 부정적인 이미지로 지각되었다. 능력 있는 인상을 주는 주황, 노랑, 파랑, 보라 넥타이는 빨강 셔츠가 파랑 셔츠보다 더 긍정적으로, 능력없는 인상을 주는 빨강과 초록 넥타이일 때는 빨강 셔츠와 배색하면 파랑 셔츠보다 더 부정적으로 지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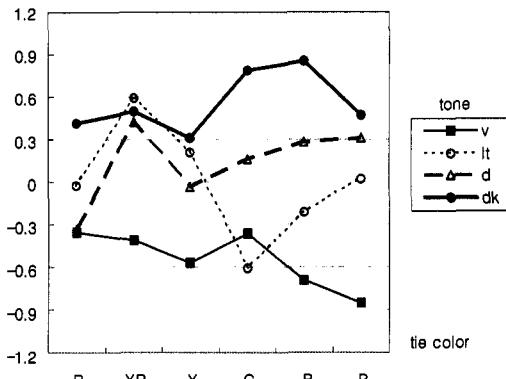
능력성 차원에 영향을 미치는 셔츠색과 톤의 상호작용효과를 <그림 5>에서 보면 셔츠색이 빨강색일 때는 비비드 톤을 제외한 라이트, 덜, 다크 톤은 긍정적



<그림 4> 능력성 차원에 영향을 미치는 셔츠색과 넥타이색의 상호작용효과



<그림 5> 능력성 차원에 영향을 미치는 셔츠색과 톤의 상호작용효과



<그림 6> 능력성 차원에 영향을 미치는 넥타이색과 톤의 상호작용효과

으로 평가되었고 파랑색일 때는 비비드, 라이트 톤은 부정적으로, 덜, 다크 톤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능력있는 인상을 주기 위해서는 톤을 비비드로 하는 것은 셔츠색에 상관없이 피하는 것이 좋고 덜, 다크 톤일 경우는 셔츠색이 빨강이나 파랑색에 상관없이 책임감 있고 성실하고 예의있고 겸손하며 안정되고 자제력있고 이성적인 것으로 지각되어 능력있는 이미지를 나타내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능력성 차원에 영향을 미치는 넥타이색과 톤의 상호작용효과를 <그림 6>에서 보면 톤이 비비드일 때는 넥타이색에 상관없이 모두 능력있는 이미지에 부정적으로 평가되었으며, 라이트일 때는 주황, 노랑, 보라 넥타이는 긍정적으로, 빨강, 초록, 파랑 넥타이는 부정적으로 평가되었다. 덜 톤일 때는 주황, 초록, 파랑, 보라는 긍정적으로, 빨강, 노랑은 부정적으로 평가되었다. 어떤 색이라도 넥타이가 다크 톤이면 책임감 있고 성실하고 예의있고 겸손하며 안정되고 자제력있고 이성적인 것으로 지각되어 능력있는 이미지를 나타내는데 다크 톤과 같이 질은 톤의 넥타이가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빨강과 파랑 셔츠에는 주황이나 노랑, 파랑이나 보라색 넥타이가 능력있는 이미지에 효과적 이긴 하나, 능력있는 이미지에는 톤이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며 셔츠뿐만 아니라 넥타이는 덜이나 다크 톤과 같이 질은 톤일 때 능력있는 이미지로 나타나 선행연구(김영인 외, 2000; 추선향, 김영인, 2002; IRI 디자인연구소, 1997)와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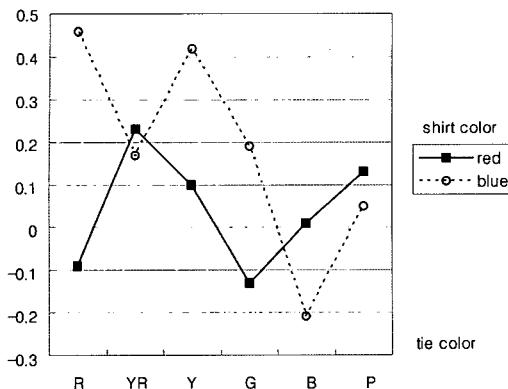
3) 매력성 차원

매력성 차원을 <표 4>에서 보면 셔츠색, 넥타이색, 톤, 지각자성별의 4가지 단서 모두 독립적인 영향을 미치며 그 중에서도 지각자성별이 가장 지배적인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MCA의 편차값에 근거한 eta²값을 통해 주효과의 영향력을 보면 셔츠색은 파랑색이, 넥타이색은 빨강, 주황, 노랑색이, 톤은 라이트, 덜, 다크 톤일 때 매력성 차원에 더 긍정적으로 평가되었고, 여자보다는 남자가 매력성 이미지를 더 높게 평가하였다.

또한 이들 네 단서 중 셔츠색과 넥타이색, 넥타이색과 톤 간의 상호작용으로 매력성 톤 인 톤 인상형성차원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력성 차원에 영향을 미치는 셔츠색과 넥타이색의 상호작용효과를 <그림 7>에서 보면 넥타이색이 빨강색일 때는 셔츠색에 따라 상반된 평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파랑색은 아주 매력적으로 지각되는 반면 빨강색은 멋없고 감각없고 매력없는 것으로 지각되었다. 넥타이색이 주황, 노랑, 보라색일 때는 셔츠색에 관계없이 긍정적인 평가를 하여 멋있고 감각있고 보기좋고 매력있고 세련되어 보이는 것으로 지각되었고 넥타이색이 초록일 때는 셔츠색이 파랑색은 긍정적으로, 빨강색은 부정적으로 평가되었다. 넥타이색이 파랑색일 때는 빨강색 셔츠는 긍정적으로, 파랑색 셔츠는 부정적으로 지각되었다.

셔츠색에 따른 넥타이 배색을 보면 빨강색 셔츠에는 동일색상이나 보색인 초록 넥타이를 배색하면 매력적이지 않고 셔츠와 유사색인 주황, 노랑, 보라색 넥타이의 배색은 매력적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 파랑 셔츠에는 동일한 색상의 파랑 넥타이를 제외하고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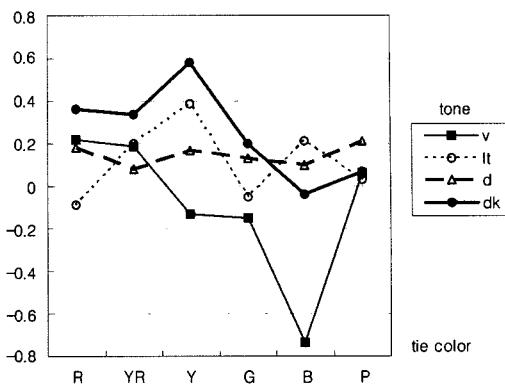
<그림 7> 매력성 차원에 영향을 미치는 셔츠색과 넥타이색의 상호작용효과

모두 매력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파랑색 셔츠에 보색인 빨강이나 노랑 넥타이를 배색하면 아주 매력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는데 이는 배색되는 두 색상의 명도 차이는 1단계 이상인 경우가 조화로우며 색상이 멀어질수록 조화감이 높아지는 경향(Granger, 1955)에 의한 것이며, 초록색과의 배색은 대체로 조화도가 낮아지므로(조민정, 2004) 조화되는 배색이 매력적인 이미지를 준다는 결과를 볼 수 있다.

매력성 차원에 영향을 미치는 넥타이색과 톤의 상호작용효과를 <그림 8>에서 보면 넥타이가 주황색이거나 보라색이면 톤에 관계없이 매력적인 인상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며, 빨강색이면 다크, 비비드, 덜 순으로, 노랑색일 때는 다크, 라이트, 덜 순으로 매력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넥타이가 초록색일 때는 다크나 덜 톤이면 긍정적이나 초록 넥타이가 비비드 톤 일 때 아주 부정적으로 지각되어 매력적인 인상을 위해서는 피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톤에 따른 넥타이색의 변화를 보면 넥타이색에 관계없이 데일이나 다크 톤은 매력성에 긍정적인 인상을 주며 비비드 톤일 때는 빨강, 주황, 보라색의 넥타이가, 라이트 톤일 때는 주황, 노랑, 파랑, 보라색의 넥타이가 매력적인 이미지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셔츠색이 빨강색일 때는 유사색의 넥타이가, 셔츠색이 파랑색일 때는 반대색의 넥타이가 매력적인 이미지에 더욱 효과적인 것을 알 수 있고, 톤은 다크나 럴 톤뿐만 아니라 라이트 톤도 매력성 차원에 긍정적으로 평가되어 대비배색 된 라이트 톤의 치마 저고리가 매력적이라는 선행연구(강경자, 최수경, 2005)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그림 8> 매력성 차원에 영향을 미치는 넥타이색과 톤의 상호작용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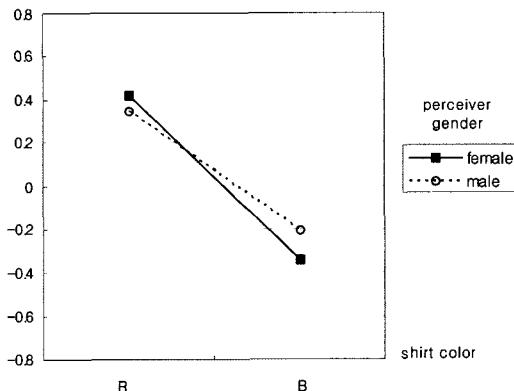
4) 온유성 차원

온유성 차원을 <표 4>에서 보면 셔츠색, 넥타이색, 톤이 독립적인 영향을 미치며 그 중에서도 셔츠색이 가장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MCA의 편차값에 근거한 eta값을 통해 주효과의 영향력을 보면 셔츠색은 빨강색이, 넥타이색은 주황, 노랑, 보라색이, 톤은 라이트 톤일 때 온유성 차원에 더 긍정적으로 평가되었고, 여자보다는 남자가 온유성 이미지를 더 높게 평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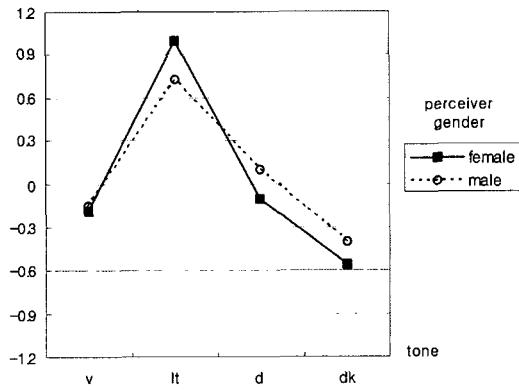
또한 이들 세 단서 중 색과 지각자성별, 넥타이색과 톤, 톤과 지각자성별 간의 상호작용으로 온유성 인상형성차원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유성 차원에 영향을 미치는 색상과 지각성 별의 상호작용효과를 <그림 9>에서 보면 남녀 모두 빨강색 색조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으로 지각하였으나, 파랑 색조는 차갑고 딱딱한 것으로 지각하여 색상에 따라 상반된 인상평가를 하였다. 한색이 온화한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김영인 외, 2000)와는 차이를 나타내었으나 이는 색상에서 톤이 포함되지 않은 결과라 사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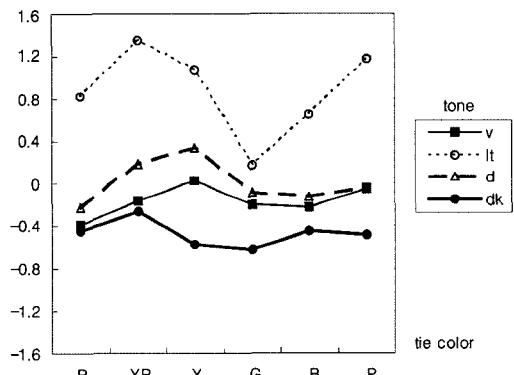
온유성 차원에 영향을 미치는 넥타이색과 톤의 상호 작용효과를 <그림 10>에서 보면 라이트 톤일 때는 넥타이색에 관계없이 모두 따뜻하고 부드러우며, 다크 톤일 때는 넥타이색에 관계없이 모두 딱딱하고 차가운 것으로 지각하였다. 비비드 톤일 때는 노랑을 제외한 나머지 넥타이색은 딱딱하고 차가운 것으로 지각하였다. 덜 톤일 때는 넥타이색이 주황, 노랑일 때는 따뜻하고 부드러우며 빨강, 초록, 파랑, 보랑일 때는 딱딱하



<그림 9> 온유성 차원에 영향을 미치는 셔츠색과 지각자성별의 상호작용효과



<그림 11> 온유성 차원에 영향을 미치는 톤과 지각자성별의 상호작용효과



<그림 10> 온유성 차원에 영향을 미치는 넥타이색과 톤의 상호작용효과

고 차가운 것으로 지각하였다.

온유성 차원에 영향을 미치는 톤과 지각자성별의 상호작용효과를 <그림 11>에서 보면 남녀가 톤에 따라 일관된 평가를 하였는데 남녀 모두 라이트 톤을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으로 비비드나 다크 톤은 따뜻하고 차가운 것으로 공통된 평가를 하여 선행연구 (IRI디자인연구소, 1997)의 톤에 따른 이미지와 같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상에서 온유한 인상평가에는 면적이 넓은 셔츠의 색이 큰 영향을 미쳤으며, 넥타이는 색보다도 톤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였는데 즉 셔츠색은 빨강색이 온유한 인상평가에 효과적이고 톤은 라이트 톤이 가장 온유한 인상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명도가 높은 난색의 색은 부드러운 느낌을 주고, 중명도 이하로 명도가 낮은 한색의 색들은 딱딱한 느낌을 준다(조필교, 정혜민, 1998)는 이론을 뒷받침해 주었다.

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2색 배색방법 중 <제1보> 톤 온 톤 배색에 이어 셔츠와 넥타이의 톤은 동일하게 하고 색상을 다양하게 배색 한 톤 인 톤 배색방법을 적용하여 이들 배색이 착용자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의복단서로 사용된 의복색(빨강, 파랑)×넥타이색(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보라)×톤(비비드, 라이트, 덜, 다크)×지각자성별(남, 여)에 따른 남성착용자의 인상은 몇 개의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27쌍의 형용사쌍을 요인분석하여 인상차원을 밝히고, 단서들 간의 상호작용효과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셔츠색, 넥타이색, 톤, 지각자성별에 따른 인상차원을 요인분석한 결과 활동성, 능력성, 매력성, 온유성의 4개의 요인이 도출되었으며, 이들 요인 중에서 활동성 요인과 능력성 요인은 중요한 차원으로 나타났다.

활동적인 인상에 영향을 미치는 셔츠색과 톤, 넥타이색과 톤, 지각자성별과 톤의 상호작용효과를 보면, 셔츠색에 따라, 넥타이색에 따라, 성별에 관계없이 비비드>라이트>덜>다크 톤 순으로 활동적이고 개성적이고 활력을 주는 것으로 지각되었다.

능력있는 인상에 영향을 미치는 셔츠색과 넥타이색의 상호작용효과에서 셔츠색에 관계없이 넥타이색이 주황일 때 가장 능력있어 보이고 보라색이나 노랑, 파랑도 긍정적으로 지각되었으나 빨강, 초록색 넥타이는 능력있는 이미지에 부정적으로 지각되었다. 셔츠색과 톤의 상호작용효과에서 셔츠는 색상에 관계없이 톤이 어두울수록 긍정적으로 지각되어 다크>덜>라이

트>비비드 순으로 책임감있고 성실하고 예의있는 것으로 지각되었다. 넥타이색과 톤의 상호작용효과에서 넥타이는 톤이 어두울수록 능력있는 것으로 지각되어 톤이 비비드일 때는 색상에 관계없이 부정적으로, 라이트일 때는 주황, 노랑, 보라색이, 덜 톤일 때는 주황, 초록, 파랑, 보라색이, 다크 톤일 때는 색상에 관계없이 모두 긍정적으로 지각되어 책임감있고 성실하고 예의있는 것으로 지각하여 덜이나 다크와 같이 짙은 톤이 능력있는 이미지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매력적인 인상에 영향을 미치는 셔츠색과 넥타이색의 상호작용효과를 보면 빨강 셔츠에는 동일배색이나 보색배색일 때 부정적으로 평가되어 빨강 셔츠에 빨강이나 초록 넥타이의 배색, 파랑 셔츠에는 파랑 넥타이와의 배색이 멋없고 감각없는 것으로 지각되었고 다른 색의 넥타이와 배색은 모두 매력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파랑 셔츠에는 빨강이나 노랑 넥타이의 배색은 매우 멋있고 감각있는 것으로 지각되었다. 넥타이색과 톤의 상호작용효과에서는 다크 톤의 노랑 넥타이가 가장 매력적인 것으로, 비비드 파랑 넥타이가 가장 매력없는 것으로 지각되었다.

온유한 인상에 영향을 미치는 셔츠색과 지각자성별의 상호작용효과를 보면 남녀 모두 빨강 셔츠는 부드럽고 따뜻하나 파랑 셔츠는 딱딱하고 차가운 것으로 지각하였다. 넥타이색과 톤의 상호작용효과에서는 톤이 라이트이면 넥타이색에 관계없이 모두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으로, 다크 톤은 색상에 관계없이 모두 차갑고 딱딱한 것으로 지각하였다. 톤과 지각자성별의 상호작용효과에서는 남녀 모두 라이트 톤을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으로 지각하였다.

이상에서 셔츠색, 넥타이색, 톤, 지각자성별은 착용자의 인상형성에 독립된 정보로 작용됨은 물론 이들 변인들이 상호작용하여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한 톤의 색상 배색인 톤 인 톤 배색에서는 톤이 큰 영향을 미치며 또한 넥타이색은 각각 4가지 인상차원 모두에 독립된 정보로 작용됨은 물론 다른 단서와 상호작용하여 4가지 인상차원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톤 인 톤 배색에서 작은 부분이지만 넥타이의 색상이 인상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남성복에 있어 작은 부분에 불과하지만 얼굴 가까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드러나는 효과가 면적에 비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으로 컨트라스트 배색, 무채색과 유채색의 배색,

무채색간의 배색에 대한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도 계속해서 연구하고자 한다. 이러한 배색유형을 달리 한 연구는 변화속도가 빨라지고 감각적인 디자인을 요구하는 현대 남성 패션시장을 더욱 다양화시키고 고급화로 이끌 뿐만 아니라 남성복 기획이나 디자인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리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경자. (2001). 한복배색의 조화감에 대한 한·미여대생의 지각반응연구(제1보)－톤 인 톤 배색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5(4), 731-742.
- 강경자. (2002). 한복배색의 조화감에 대한 한·미여대생의 지각반응 연구(제2보)－톤 온 톤 배색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6(3/4), 443-453.
- 강경자, 임지영. (1996). 넥타이의 색과 무늬가 남성복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2(3), 312-320.
- 강경자, 최수경. (2005). 배색방법이 한복착용자의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톤 인 톤 배색을 중심으로－. *복식문화연구*, 13(6), 977-989.
- 국민표준체위조사. (1997). 사이즈코리아. 자료검색일 2005, 9. 1, 자료출처 <http://sizekorea.ats.go.kr>
- 김영인, 문영애, 한소원. (2000). 한국 성인남녀의 의복선호색. *한국의류학회지*, 24(7), 964-975.
- 김윤경, 강경자. (2003). 의복스타일과 색상·톤 조합이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7(3/4), 395-406.
- 남미우, 강혜원. (1994). 상황, 의복단서 및 관찰자의 연령이 남자 의복착용자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18(3), 311-326.
- 이경순, 김희섭. (1998). *의생활과 패션코디네이션*. 서울: 교문사.
- 이명희. (2002). 의복유형 및 배색이 여성의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6(3/4), 503-514.
- 이은미, 강혜원. (1994). 의복단서 및 착용자 연령이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남성정장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18(2), 197-210.
- 이주현, 조궁호. (1995). 의상디자인 요소가 의복착용자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제1보)－의복형태와 색채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19(5), 747-764.
- 이향미, 김재숙. (1998). 남자 고등학교 교사의 인상형성에 미치는 의복 격식차림, 색 및 맥락의 영향－대전지역 남·여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2(3), 312-320.
- 조민정. (2004). *패션디자인에 있어서 색채조합에 따른 색채조화 유형과 체계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조필교, 정혜민. (1998). *패션디자인과 색채*. 서울: 전원문화사.
- 최유진, 이명희. (2004). 남성의 재킷, 와이셔츠, 넥타이색의 이미지 지각과 선호도 연구. *복식*, 54(6), 131-140.

- 추선흥, 김영인. (2002). 패션소재의 색채이미지와 질감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6(2), 193-204.
- IRID자인연구소. (1997). 한국인의 색채감성척도의 개발에
관한 연구. 통상산업부 보고서.
- KBS한국색채연구소. (1991). *실용한국표준색표집*. 서울: 공업
진흥청/한국방송공사.
- Granger, G. W. (1955). The prediction preference for color har-
mony. *J. gen. Psychol.*, 52, 213-222.